

인 터 서 브 프렌즈

인터서브 코리아 30주년

작은 자들의 이야기 _ 정마태 선교사

기도로 태어나고 기도로 살아가는 인터서브 _ 권성희 선교사

섬의 신학, 섬이 실종된 세상과 교회에게 _ 정민영 이사

일상에서의 주재권 _ 송기태 부대표



Christmas

Christmas

★
Merry
Christmas

Four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contents

Value

변혁의 공동체
Transforming Community

- 04 **쉽의 신학** _ 정민영 이사
- 08 **일상에서의 주재권 Lordship** _ 송기태 부대표
- 10 **Christmas Greetings!** _ 조샘 대표

인터서브코리아 30주년 특집

- 12 **작은 자들의 이야기** _ 정마태 선교사
- 17 **기도로 태어나고 기도로 살아가는 인터서브** _ 권성희 선교사
- 21 **인터서브코리아 30년 역사**

Ministry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All Things To All Peoples

- 22 **인터서브 필드** _ 중국 _ 프란시스정 선교사
- 26 **미션얼 북** _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

*Creation Care

인터서브 프렌즈는 친환경적인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

☐☐ 인터서브 이슈

쉽의 신학

쉽이 실종된 세상과 교회를 향한 고언^함씀

정민영 이사

들어가며

COVID19 사태가 주는 뜻밖의 선물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온 세상이 몸살을 앓고 있다. 실상 몸살을 앓는 건 피조세계가 아니라 인간들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숨가쁘게 달려온 산업사회의 톱니바퀴가 팬데믹 때문에 반강제적 작동중지가 되어 곤혹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역설적으로, 피조세계에게는 희년의 안식을 누리는 뜻밖의 선물이 되었고, 활동과 동선이 제한된 인간들에게도 '강요된 쉽'이 '변장된 축복'^{silver lining}으로 다가왔다. 인간이 예전처럼 일하지 않는다고 세상이 멈추기는커녕 되레 소생하는 역설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인간이 피조세계에게 바이러스같은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현 상황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과거의 분주한 일상과 사역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두르기보다 이런 상황을 허용하시는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분별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전 7:13-14) 깊은 성찰을 요구하는 몇몇 본질적 이슈들 중, **쉽/안식**이란 화두를 다뤄보고자 한다.

1. **쉽(끝, 목적)을 향한 삶**

세간에 잘 죽기(well dying) 위한 ‘삶쉽’이란 프로그램이 있어 놀랐다.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양질의 삶(well being)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던 세상이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새롭게 다가왔다. 그렇다. 단 한번 주어진 인생을 잘 살고 잘 죽어야 한다. 출생은 끝을 향한 대장정의 시작인 셈인데, 세상은 끝을 육체의 죽음으로 보는 반면 성경은 영원한 안식으로 본다.

성경적 세계관의 특징은 시간관에 잘 드러난다. 세상의 시간개념은 시작이 모호하고 끝없이 흘러가는 물리적 시간인데 반해, 성경은 시작-창조와 끝-종말이 있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을 가르친다. 끝이 있다는 건 삶이 본질적으로 목적을 지향하며 그 목적을 이루면 이 세상이 끝난다는 의미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따라 잘 살고 잘 죽어야 하는데, 릭 워렌은 그것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 정의한다.

끝은 존재의 중단이나 멸절이 아니라 목적을 가리킨다. 영어단어 ‘end’는 ‘끝’을 말하기도 하지만 ‘목적’을 의미하기도 한다. 목적 선언문을 purpose statement 또는 end statement라 표현하는 이유다. 따라서 산다는 건 단순히 육체에 호흡이 붙어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삶을 선물하신 창조주의 의도와 목적에 부합하게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존재라야 한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히 9:27, 새번역) 생명(生命)이라는 한자가 살아있음(生)과 사명(命)의 조합이라는 사실이 새삼 절묘하게 여겨지는 지점이다.

그렇다면 육체적 죽음을 단순히 삶의 시한만료라는 부정적 개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성경적 관점에서 삶의 지향점으로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역설적으로, 살지 못해 죽는 게 아니라 바른 죽음을 향해 잘 살아야 하는 것이다. 이미 거론했듯 성경은 죽음을 영원한 안식으로 가르친다. 이생의 삶은 영원한 안식을 지향하는 여정인 셈이다.

2. **안식개념 부재한(부족한) 노동윤리**

문제는 쉽과 안식의 개념이 취약한 개신교회의 전통과 신학이다. 개혁자들은 중세 성숙이원론에서 벗어나 세상과 일상의 모든 영역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하나님 나라)를 강조했고, 그 결과 성직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일과 직업을 소명으로 인식하는 건강한 관점전환이 일어났다. 산업혁명은 그 필연적 결과였고, 노동의 신성함과 청지기적 근면을 강조하는 노동윤리가 개신교 신학의 간판이 되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살후 3:10)는 바울의 가르침을 표어로 내세운 가나안농군학교같은 노동운동도 계속 늘어났다.

그러나 노동과 쉽의 건강한 균형을 놓치면서 축재(蓄財)와 일중독이라는 새로운 우상이 등장하는 아이러니에 봉착하게 되었다. 개신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이 부유해지면서 경제발전을 하나님의 복과 동일시하는 배금주의를 낳았고, 후발주자로 무한경쟁에 뛰어난 대한민국도 “잘 살아보세”라는 새마을운동의 깃발을 내세워 ‘잘



사는 것'을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못 사는 것'을 '돈 적게 버는 것'과 동일시하는 천민자본주의로 치달았다.

일중독은 개인과 사회의 문제로 여겨지기보다 되레 자랑거리로 둔갑했고, "게을러서 못 산다"라는 그릇된 표현이 일상의 대화 뿐 아니라 강단에서도 여과없이 튀어나올 정도가 되었다. 잘 살고 못 사는 건 경제의 이슈가 아니라 삶의 질에 관한 것이다. 국민소득이 낮은 나라의 삶 만족도가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반전을 놓고 우리네 현주소를 심각히 재고해봐야 하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미국이나 한국처럼 잘 살게 된다는 식의 천박한 가치관이 선교현장에서 버젓이 복음의 탈을 쓰고 선포되는 게 옳은가?

삶의 질을 위해 최소한의 재정이 필요하지만,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으로 족하고, 공존공생을 위해 보험회사 아닌 공동체가 어깨를 맞대는 게 성경적이지 않은가?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과 일중독 통한 축재(蓄財)에 초점 맞추는 미국형 자본주의 'live to work' 보다 삶의 질에 초점 맞추는 유럽방식 'work to live'에서 해법을 찾는 미국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의 저서 'European Dream'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돈과 일의 노예가 되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망치는 그릇된 관행에서 벗어나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을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일중독에 내몰기 위함이 아니라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해주시기 위함이 아닌가? (요 10:10)

3. 안식과 구원론


안타깝게도, 그런 빛나간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바로잡아줘야 할 현대교회는 되레 그 흐름에 편승하거나 심지어 조장해왔다. 부끄러워해야 할 질병인 일중독 증후군을 훈장처럼 자랑하는 사역자들이 많은 변태적 병리현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 문제의 본질을 다루려면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창조기사로 거슬러가야 한다.

성경 해석에서 혼한 오류 중 하나는, 창조기사의 핵심을 처음 6일로 보고 마지막 날은 여백 정도로 오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가 6일째 끝나고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어서 7일째 쉬신 게 아니다. 그분의 창조는 7일째 끝났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창 2:2). 더 이상 할 일이 없어 쉬신 게 아니라, 안식을 포함하고 지향한 창조였다. 그래서 제7일을 특별하게 구별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창 2:3)

쉼과 안식의 개념이 약한 것은 곧 구원론이 약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성경이 구원을 현재와 미래의 안식으로 표현하기 때문이다. 특

히 히브리서 4장은 안식과 구원을 상호교차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종말적으로 완성될 안식-구원 개념(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나" 히 4:11)뿐 아니라, 현재적 안식-구원-영생의 개념을 표현한 말씀이 병행된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느도다."(히 4:3);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히 4:10);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전 3:11-12)

님의 일은 진행되고, 그분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목회자들의 목회자’란 별명을 가진 유진 피터슨은 “쉬지 않는 사역자가 가장 교만한 사역자”라고 종종 말했다는데, 이는 마치 자신이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양 치부하는 오만이기 때문이다. 사역과 삶의 균형은 일중독을 강요하는 시대정신에 맞서는 counter-cultural 성경적 사역원리다. 그의 저서 ‘The Unnecessary Pastor: Rediscovering the Call’을 인용하며 본고를 마친다. 

“

나가며

쉽을 누리는 증인

앞에서 살핀대로, 이생의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건 지금 여기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복음의 증인’이란 정체성으로 이 세상에 잠시 머문다. 영원한 안식(구원)을 지향하는 자의 삶이 종말적 영생의 길을 반영할 때 비로소 증인의 자질을 갖춘 셈이고, 그런 자질을 가진 자라야 절망적 일중독의 늪, 예를 들어 ‘헬조선’에 빠진 수많은 이들에게 소망이 될 수 있다. 유물론적 배금주의를 포함한 천박한 가치관과 “잠은 죽어서 잔다”는 식의 근거없는 궤변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건강한 삶이 모든 증인에게 요구된다. 요즘은 세상도 ‘워라밸’ work and life balance 이나 작지만 확실한 행복 즉 ‘소확행’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의 쉽은 그보다 훨씬 탁월해야 하지 않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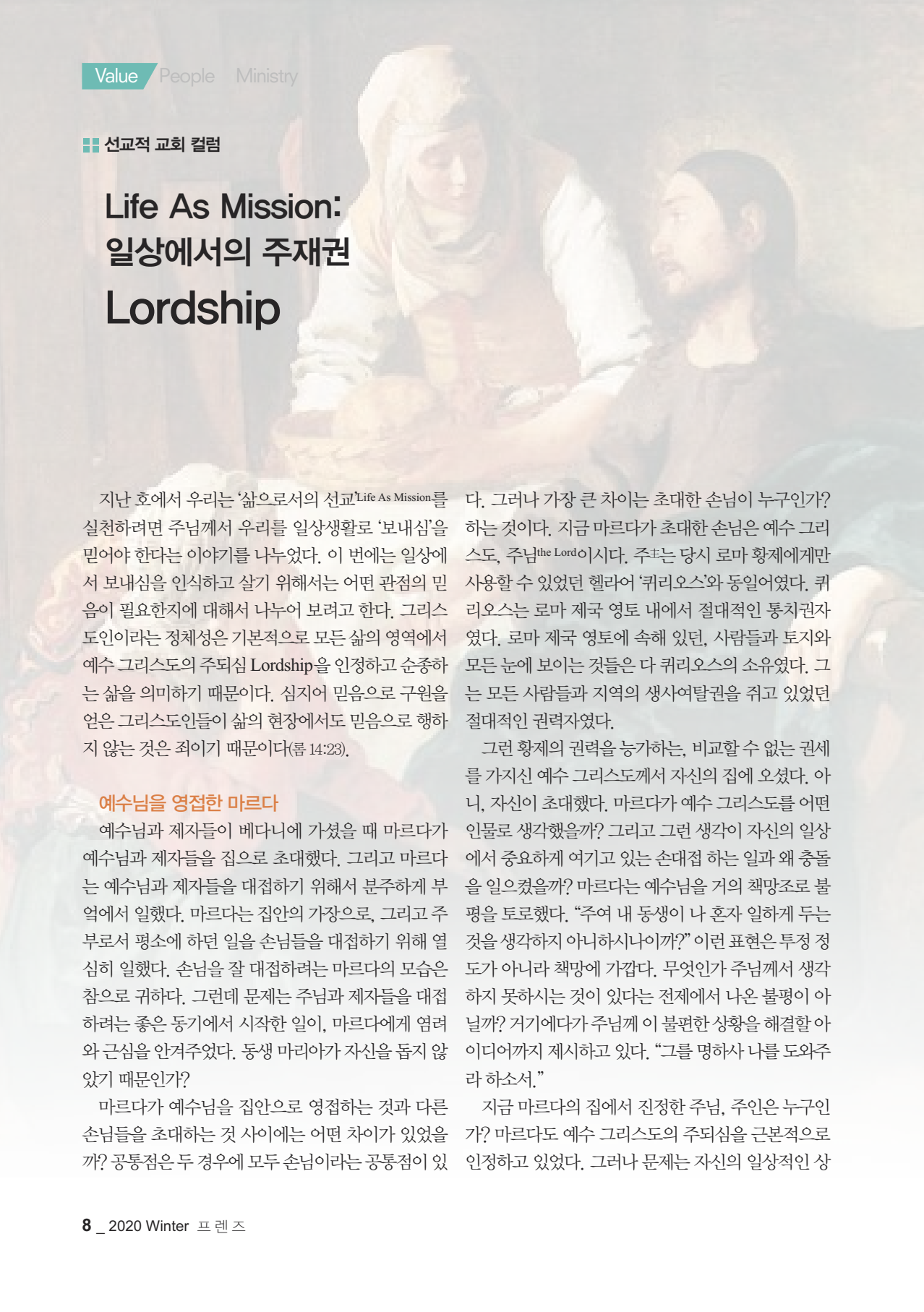
하나님의 선교에 초청받은 청지기로서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자세가 필요한만큼,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라 적절히 쉬고 재충전 받는 균형도 건강한 삶의 필수조건이다. 마르다가 견지한 ‘일 중심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속에서 쉽과 섬김의 균형을 유지한 마리아의 지혜가 요구된다. 우리가 일할 때뿐 아니라 쉴 때도 하나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 지도력은 다음 세 관점에서 필수불가결 요소가 아니다:

- 1) 세상문화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관점
- 2) 목회자들 스스로 필수적이라고 여기는 관점 그리고
- 3) 회중이 목회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관점

회중과 지도자 공히 목회자가 필요한 근거를 성경이 아닌 문화에서 찾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듯, 회중은 그들을 지도하고 영감을 주며 즐겁게 해주고 교회를 멋지고 신나게 만들어줄 ‘왕’을 원한다. 그 결과 목회자들은 에베소서,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나타나는 성경적 사역모델을 떠나 비즈니스 모델이 가르치는 관리, 마케팅, 유흥, 치유를 따른다... 바울과 디모데, 디도는 ‘불필요한’ 목회자들의 전형으로, 그들의 사역은 문화에 반응했지만 문화와 자아와 회중의 기대에 부응하지는 않았다.

”


 ■ 선교적 교회 컬럼

Life As Mission: 일상에서의 주재권 Lordship

지난 호에서 우리는 '삶으로서의 선교' Life As Mission을 실천하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일상생활로 '보내심'을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번에는 일상에서 보내심을 인식하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관점의 믿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나누어 보려고 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 Lordship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다(롬 14:23).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리고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부엌에서 일했다. 마르다는 집안의 가장으로, 그리고 주부로서 평소 하던 일을 손님들을 대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손님을 잘 대접하려는 마르다의 모습은 참으로 귀하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려는 좋은 동기에서 시작한 일이, 마르다에게 염려와 근심을 안겨주었다. 동생 마리아가 자신을 돕지 않았기 때문인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안으로 영접하는 것과 다른 손님들을 초대하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공통점은 두 경우에 모두 손님이라는 공통점이 있

다. 그러나 가장 큰 차이는 초대한 손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이다. 지금 마르다가 초대한 손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the Lord이다. 주^는 당시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할 수 있었던 헬라어 '퀴리오스'와 동일어였다. 퀴리오스는 로마 제국 영토 내에서 절대적인 통치권자였다. 로마 제국 영토에 속해 있던, 사람들과 토지와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퀴리오스의 소유였다. 그는 모든 사람들과 지역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던 절대적인 권력자였다.

그런 황제의 권력을 능가하는, 비교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집에 오셨다. 아니, 자신이 초대했다. 마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인물로 생각했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이 자신의 일상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손대접 하는 일과 왜 충돌을 일으켰을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거의 책망조로 불평을 토로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런 표현은 투정 정도가 아니라 책망에 가깝다. 무엇인가 주님께서 생각하지 못하시는 것이 있다는 전제에서 나온 불평이 아닐까? 거기다가 주님께 이 불편한 상황을 해결할 아이디어까지 제시하고 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의 집에서 진정한 주님, 주인은 누구인가? 마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근본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자신의 일상적인 상

황에서 그녀는 분명히 자신이 주님 행세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주님을 책망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아이디어까지 제시한 것 아닌가?

일상은 일상이고, 선교는 선교인가?

우리들도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이미 영접한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주님되심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그림의 경우처럼 ‘선교를 위한 삶’^{Life For Mission}은 선교를 일정한 활동, 단기선교 참여, 선교 중보 기도, 선교사 후원 등으로 생각하는 관점이다. 물론 이런 일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영역 이외의 삶, 가정, 직장, 이웃과의 관계 등은 선교적, 혹은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으려는데 있다. 그래서 일상적인 삶에서는 성경에서 제시하는 삶의 원칙, 윤리들을 잘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데는 매우 한계를 나타내게 된다. 소위 이원론적인 삶^{dualistic life}을 살게 된다. 이원론적 관점은 어떤 영역은 주님께서 다스리시지만, 그 외에 영역은 그 다스림에서 벗어난다고 여기는 관점이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을 축소하는 심각한 우를 범하게 된다. 이런 관점의 신앙관은 삶의 일상에서 고스란히 반영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으면서도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나온 선교 참여 아이디어가 ‘가든지 보내든지’^{go or send}이다. 이런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이 주일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의 주재권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단기선교나, 봉사 활동 등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삶의 현장에서 주재권에 순종하는가?

삶의 현장 전체가 ‘선교로서의 삶’^{Life As Mission} 이 되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삶의 현장으로 보내셨다고 믿어야 한다. 또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주님의 주님되심^{Lordship}을 인정하고 믿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기보다, 자신의 일을 그것도 세속적인 방식으로 행하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과 직장 and 이웃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으로 일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관점이 변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보다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점을 갖게 된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자기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이다(요 6:38). 예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전심전력하셨다. 보내심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고 계신다(요 20:21).

선교적 삶^{Missional Life}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the sent}로서 사는 삶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삶의 현장도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을 그 현장에 보내시고, 가정과 직장 and 이웃들에게도 주인이 되시는 분이시다. 그 현장에서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익숙한 삶의 현장에서 고백해야 한다. “주님! 당신은 오늘도 저의 직장 and 가정에서의 주인이십니다.”³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골 3:23)

Christmas Greetings!

샬롬! 샬롬! 샬롬!

변화와 역동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인터서브 식구들께 평화를 전합니다.

올해는 코비드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모두들 불안과 두려움을 경험한 역사적인 한해였습니다. 나라는 건강과 경제로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 가운데 나누었던 생각들과 적대감이 드러나며 전에 보지 못한 긴장과 갈등을 경험했습니다.

인터서브가 섬기는 아시아의 아랍의 어려운 이들의 경우, 매일의 삶 속에서 큰 가난과 질병과 전쟁을 경험하고 있음을 매일 듣게 됩니다. 또한 올해는 우리가 파괴했던 환경과 생태가 다음 세대의 미래뿐 아니라, 당장 우리 삶을 위협함을 보여준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악으로 인해서 만물이 신음하고 있는 중간기를 지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샬롬이라 하니라”

- 누가복음 2장 -

이천년 로마와 헤롯의 폭정 가운데서 복음서 저자가 고백했듯,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샬롬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 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오히려 더 큰 영광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샬롬이 연말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신비로 임하길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의 삶이 세상에 가운데 샬롬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2020. 12. 5.
인터서브 조샘 올림

인터서브코리아 30주년 특집

(1990 ~ 2020)

1990s

2000s

2010s

Rewind

인터서브코리아, 30년을 회상하며...





“작은 자들의 이야기”

인터서브코리아 30주년의 회고와 전망



정마태 선교사

인터서브코리아가 벌써 30살이 되었다. 참으로 감사하다. 이 글을 통해 30년 전 시작된 작은 자들의 작은 출발과 30년의 발자취 그리고 작은 자들의 내일의 성숙한 모습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1. 작은 자들의 작은 출발

인터서브는 1852년 당시만 해도 사회적 약자였던 ‘여성’ 의사와 간호사로부터 시작되었다. 인도에서 여성은 한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남자와 구별된 지역에 그쳐 아이 낳는 일과 남성들의 필요에 이용되어 살고 있었다. 이 여인들을 위하여 영국의 두 의료인을 파송한 것이 인터서브의 작지만 위대한 출발이 되었다.

138년이 지난 1990년 12월 1일에 인터서브가 한국에 탄생했다. 당시 국제 대표인 마이크 로멜리(1982~1992년 국제 대표 역임)가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인터서브가 한국에서 출발하도록 중요한 초석을 놓았다. 그 외 스코틀랜드 인터서브 대표

였던 브라이언 링로즈 대표와 그의 아내 마거릿, 미국의 톰 헤일 부부 등 인터서브 리더십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중요한 도움을 주며 발판을 놓았다.

그러나 사실, 1980년대에 전재욱 교수가 파키스탄에서 사역하며 인터서브와 함께 활동했고, 영국에서는 권성희 선교사가 1980년대 후반부터 런던 외곽에서 영국 인터서브와 동역하고 있었다.

국내에서는 남진선 초대 총무의 적극적인 활동과 이태웅, 전재욱, 윤종하, 박재형, 여러 의사들과 전문가, 지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서서히 인터서브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간사로 섬겼던 김주연, 김동문, 김기학과 이현경부부, 박용덕 등 역시 잊어서는 안 될 작은 손길들이다. 소박하고 단출한 작은 자들의 시작이었다. 이사들과 간사들은 매주 월요일 새벽에 모여 기도하고 빵 등으로 간단한 식사의 교제를 하였다. 겨울엔 때때로 전재욱 교수가 군고구마를 가지고 와서 맛있게 먹었다. 이 소박한 손길들은 더 작은 이들을 섬기기 위해 꿈을 꾸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기쁘게 섬기며 내일의 위대한 발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인터서브는 점점 한국에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 People for Hard Places 로 알려지게 되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어려운 환경에 사는 이들을 섬기던 인터서브 사람들에게 게 자연스럽게 붙여진 명칭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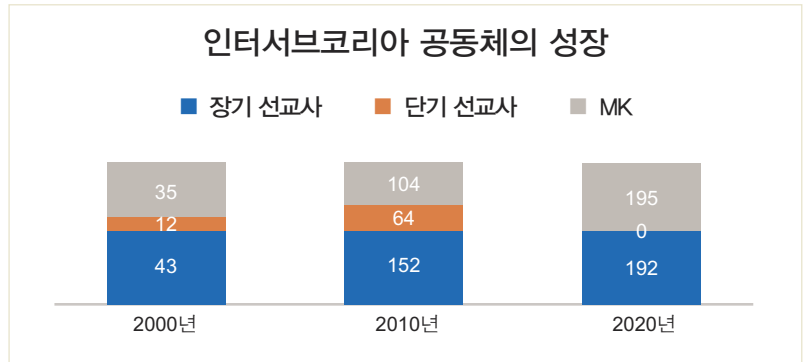


▶ 인터서브 창립 이사님들, 90년대 본부 스태프들

2. 작은 자들의 30년간 발자취 지난 30년간, 국제본부에서는 짐 테베, 헨크 블룸, 폴 벤티 사무엘, 그리고 현재 비조이 코쉬까지 네 명의 국제 대표가 수고하였다. 국내에서는 이사장으로 박재형, 한기수, 한인권, 박용준, 이문식, 그리고 현재 김민철 이사장이, 국내 대표로는 남진선, 윤한묵, 하드만 박사, 김선철, 남진선, 정마태, 박준범 현재 조원상이 섬기고 있다. 또 각 지방 이사회들의 이사들과 해외 캐나다, 미국, 뉴질랜드, 영국, 유럽, 태국 이사들이 수고하였다. 또한 국내와 해외의 디아스포라 사역이 확장되었다.

인터서브가 한국에서 출발한 지 4년만인 1994년, 국제 인터서브는 인터서브 코리아를 정식 이사국National Council으로 승격했다. 1997-1998년 IMF위기에 돌 속에서도 인터서브는 계속해서 성장했다. 감사하게도 국제 인터서브 내 여러 나라가 한국 사역자들을 재정적으로 도왔다.

지난 30년간 수적인 성장도 있었다. 10년을 맞이하는 2000년, 장기 선교사 43명, 선교사 자녀 35명, 단기 선교사 12명으로 성장했으며, 터키에서 “10년 회고와 전망” 주제로 선교대회를 열었다. 2010년에는 태국 파타야에서 “나의 달려갈 길, 우리의 달려갈 길” 주제로 20주년을 기념하였는데, 이 당시 장기 선교사의 수는 152명으로 국제 인터서브의 18%였고, 35 나라 중 21개 나라에서 사역하고 있었다. 선교사 자녀들 104명, 단기 선교사는 64명으로 증가하였다. 30년을 맞는 2020년에는 장기 선교사 192명, 자녀 195명으로 성장하였지만, 코로나로 인해 단기 사역자들은 귀국하거나, 파송이 지연되고 있다.



▶ 2020년 11월 기준

여러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배출되었다. 국제 인터서브를 통하여 배우고 사역하는 나라에서 여러 나라 사역자들과 현지 리더들과 함께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며 함께 배우고 성장해 가고 있음은 무척 기쁜 일이다.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경험하며 축적된 인터서브 가치관과 공동체 안에 내재하는 총체적인 영적 내공과 건강한 조직 문화 덕분이라.



▶ 2011 글로벌양성과정, 2014 ISK 호주선교대회

3. 작은 자들을 30살이 되었으니 이제 성숙한 모습이 드러날 때가 되었다. 인간은 고난을 통해 성
섬기는 속해진다. 고난은 나를 더 알아 가고, 하나님을 더 알고, 인간을 이해하는 기회를 준
작은 자들의 다. 코로나로 인해 더욱 21세기 환경과 한국 내 상황이 좋지 않다. 모든 게 축소되고
내일의 있다. 그러나 사실, 세계에 ‘축소’ 현상은 1980년대부터 점진적으로 나타났다. 코비
성숙한 모습 드 팬데믹 상황은 세계가 직면한 여러 ‘축소’ 현상 중의 하나일 뿐이다. 내일에 성숙
 한 인터서브 공동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 겸손. 겸손은 성숙이 드러나는 가장 큰 증거다. 바울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베소서 3:8)라며 옥중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재발견했다. 작아지고 낮아져야 비로소 작은 자들이 보이고 그들을 섬길 준비가 된다.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 자신을 더 알아가며, 어려운 아시아 아랍 지역에 살아가는 작은 이들을 겸손하게 섬길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축소된 세계와 사회의 양극화와 다양화 상황 속에 필요한 분별력 키우기. 경쟁과 성공은 인간을 늑대로 만든다. 성장 사회에서는 늑대들이 판을 친다. ‘축소’가 심화되면 늑대들은 더 사나워진다. 양극화와 다양화가 극대화되는 현시대가 이를 반영하고 있다. 이런 양극화 사회 문화 현상 속에서 인터서브 사람들은 국제적인 다양한 경험에 깊은 성숙과 인내로 사람들을 섬길 준비가 되어야 한다. ‘어떻게 이러한 큰 어려움을 피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이자, 성숙의 모습이다. 사실 이것은 정말 큰 도전이다. 우리의 자량은 숫자가 많아 지는 것이 아니라, ‘축소화’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별력을 지닌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시대의 복잡성과 거대한 혼란 속에 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 개인주의에 익숙한 우리지만, 최소한 국제 인터서브 리더십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시대를 분별하며 결정하고 지금에 이르렀다. 인터서브코리아 공동체도 그들로부터 배우며 그렇게 닦아가기를 기대한다.

셋째, 용서가 이루는 치유와 회복. 우리는 서로 용서해야 한다. 인터서브 공동체 내에서 용서해야 한다. 내가 여러분들 중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어려움을 주었다면,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분께 용서를 구한다. 용서 없이는 본인 뿐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트린다. 용서를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실습하고, 밖으로 나가 남들을 용서해야 한다. 축소되는 일이 너무 많아 경쟁에 뒤처지고, 남을 헐뜯고 무너뜨리는 일이 일상화된 시대가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용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을 가져오는 성숙한 이들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용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넷째는 작은 자들을 섬기기 위해 자신을 죽이는 연습. 예수님은 30년 준비하시고 3년의 사역 후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생명은 생명을 낳는다. 그러나 죽음을 통해 생명이 탄생하는 것은 한 알의 밀알이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자연의 이치이자 원리

다.(요한복음 12:24) 잘 알지만 잘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0년간 죽는 연습을 많이 한 사람들이다. 오늘날 사역 현장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 가기 힘들다. 살인과 폭력과 거짓이 판치고 있다. 죄악과 가난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이 되었다. 인간 취급도 못 받으며 산다. 이 작은 자들을 위해 모욕과 수치와 무시와 오해를 받고, 자신이 죽는 경험을 하며 섬긴다. 바로 그곳이 성숙이 자라가는 토양이라 믿으며 말이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전문가들이며 리더들인가?

진정으로 우리는 어려운 곳의 사람들인가?

내가 섬기는 사람들 안에서 복음을 총체적으로 현실화하여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 지도로 남을 섬기는 사람들인가?

이러한 성숙은 매일의 십자가를 통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능력이라 믿는다.

팬데믹 상황이나, 이보다 더한 상황을 168년 거처온 국제 인터서브 공동체와 그리고 인터서브코리아를 지난 30년간 지켜 주시고, 붙잡히 여겨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모두를 성숙하게 자라게 하실 그분을 신뢰한다. 샬롬 



정마태 선교사님은 인터서브코리아가 필드로 파송한 첫 선교사이십니다. 93년부터 P국에서 현지 교단과 함께 사역하였습니다. 2000년에는 국제 본부에서 지역 대표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대표로 섬기셨습니다. 현재는 다시 P국에서 가장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도로 태어나고 기도로 살아가는 인터서브”



권성희 선교사



▶ 권성희, 팀 선교사 부부

인터서브의 소문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 마태 28:18-20.

내가 영국의 All Nations Christian College에서 선교학을 전공하고 있었을 때다. 그 당시 영어에 지쳐 있던 나는 전 세계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같이 공부하던 친구 요나단은 영국 인터서브에 소속으로 T국에서 섬겼다. 그는 인터서브 기도 모임을 인도할 때마다 나를 초대하곤 했다. 타의 반, 자의 반 참석하게 된 기도 모임에서 나는 인터서브의 역사와 성격, 사역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교수님들과 요나단의 끈질긴 요구에 영국 인터서브에 합류하게 되면서 나의 선교지는 선진국이자, 부자 나라, 크리스천 나라로 알려진 영국이 되었다. 지금도 예외는 아니지만, 당시 영국은 영적으로는 침체가 된 시기였다. 식민지로 있었던 전 세계인들이 그들의 종교와 함께 정착하는 것이 싫어 그들을 외면하고 차갑게 대하는 분들이 많았다. 나는 사랑이 메마른 런던 남

쪽에서 외로움과 두려운 사역을 시작했다. 어둠 속을 헤매는 수많은 타 종교인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무엇인가 잡으려고 발버둥 치는 외국인들, 런던에서만 그 당시 300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었다. 인터서브는 영육간의 가난한 이들에게 이름 없이 조용히 헌신하며 주님을 섬기는 단체로 알려져 있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사야 61:1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아픈 이들을 위로하는 인터서브를 보았다.

**기도로 잉태하여,
기도로 태어나고
기도로 살아가는 한국 인터서브**

졸업 전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영국 인터서브에 인터뷰를 하러 갔다. 들어서자 선교사들의 사진이 붙여진 세계 지도가 눈을 사로잡았다. 점심시간에 모여 앉아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참 인상적이고 감동적이었다. 2 주 후에 인터서브 선교사 허입 환영의 편지를 받고 정식으로 인터서브 영국에 합류하게 되었다. 그 후 기도의 동역자들과 기도하며 한국에도 인터서브가 세워졌으면 하는 열망이 생겼다. 졸업 전엔 교수님들과 학생들, 졸업 후엔 인터서브 기도의 동역자님들과 열정적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 몇 년 뒤 한국에 인터서브가 탄생했다. 기도로 동참하신 모든 분은 이 소식을 듣자 ‘주님이 탄생하게 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주님께 계속 기도할 거예요’ 하면서 오래도록 기쁨의 환호성을 질렀다. 기도로써 잉태하고 기도로써 태어난 인터서브라 그런지 아직도 그분들은 기도 제목을 궁금해하며, 매일 선교사들과 한국 인터서브를 위해 기도를 하며 남은 생을 보내시고 있다. 영국보다 역사가 짧은 한국 인터서브가 이렇게 빨리 든든히 성장한 것은 한국의 이사님들과 스테프들의 수십년간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한국의 풍습처럼 빨리빨리 응답해주신 것이리라.

**기쁨과 사랑으로 섬기고자
몸살 난 인터서브**

안식일을 맞아 한국 인터서브에 찾아서 갔을 때, 초대 이사장 박재영 박사님 부부와 스테프 몇 분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점심시간엔 그리웠던 한국 음식을 주문하여 나누어 먹으면서 잊을 수 없는 참 아름다운 교제를 했다. 아직도 몇 분의 초창기 이



▶ 박재형 이사장님 댁에서 예배드리는 모습

사님들과 스태프들과 교제를 하고 있다. 영국과 한국 장소는 다르지만 같은 주님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기는 인터서브를 느낄 수 있었다. 스태프들은 공항에 마중과 배웅 뿐 아니라 한국에서의 모든 절차를 알아서 안내해주곤 하였다. 선교사들을 잘 섬기고자 안달복달하던 것이 기억난다. 이사님들은 매달 지방에서도 올라와 안식년을 맞이한 선교사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했다. 또 지방에 계신 이사님들과 연결하여 사역 보고를 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결혼 후, 한국에서 안식월을 맞이할 때마다 남편 팀 목사는 인터서브에 매일 같이 출근하기를 너무 좋아했다. 팀 목사는 한국 오피스의 벽에 걸려있던 선교사들의 사진이 붙은 세계지도를 보고 기도하는 선교단체라는 첫인상을 받았다. 또 선한 행함과 헌신적인 섬김을 통해 도전을 주는 인터서브 모든 분으로 인해 감동하였다. 점심을 주문하여 사무실에서 오손도손 모여 앉아 먹을 때, 처음으로 시켜먼 짜장면을 맛본 팀 목사는 마치 천국 잔치에 참석한 것 같았다고 회상했다. 한번은 이사님의 초대로 산 낙지를 처음으로 먹어 보고 자기는 죽은 것을 좋아한다며 주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주님께서 제지들과 식탁의 교제를 한 것같이 인터서브의 인상깊은 식탁의 교제도 추억에서 빼놓을 수 없다. 한국어를 못하는 팀 목사에게 스태프들이 진땀을 흘리면서 손발을 사용하며 대화한 것 또한 아름다운 추억이다. 인터서브 초기를 회상하면 기쁘고 행복한 추억과 깊은 친교가 떠오른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는 인터서브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인터서브가 태어났을 때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모두가 어쩔 줄 몰랐는데 벌써 30년이 되었다! 책상 3개에 스태프 3명, 자원봉사자 그리고 몇 명의 이사님들! 매달 친필로 한국 인터서브의 소식을 재치 있게 써서 보내주어 위로와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다. 지금은 듬직하고 활기 넘치게 모든 일에 지혜롭게 처리함을 볼 수 있다. 아름답게



▶ 90년대 인터서브의 모습
▼ 1992년 인터서브 이사 및 스태프들



왕성한 청소년의 모습으로 성장한 인터서브. 단단하게 서있더니 믿음직스럽고 감격스럽다.

영국 인터서브 컨퍼런스에서 한국 인터서브가 급속히 성장한다는 보고를 들으면 입가에 미소와 함께 눈물이 맺힌다. 넓은 마음으로 가슴을 활짝 열고 많은 경험하며, 기쁨의 열매와 감사와 찬양 아끼지 않는 한국 인터서브! 그리고 어려움 타 문화권속의 기로에서 허덕이는 선교사들을 묵묵히 사랑과 기도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는 인터서브 식구 모두에게 갈채의 박수를 보낸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부부가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 **✝**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요한계시록 2:19



권성희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인터서브가 시작되기 전부터 영국 인터서브의 소속으로 영국에서 아시아와 아랍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였습니다. 1990년 한국에 인터서브가 시작되자 국제 인터서브와 한국 교회를 연결해 주는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인터서브코리아 30년 역사 (1990 ~ 2020)



1990
인터서브코리아
창립예배



1994
인터서브 국제대회에서
정식 이사 회원국으로
승격

1993
파키스탄으로
첫 장기선교사 파송

2000
창립 10주년
"10년 회고와 전망"



2004
극동아시아 지역으로
사역 확장
(북한, 중국, 러시아 접경)



2011
인터서브 국제 리더십
총회 개최

2010
창립 20주년
"나의 달려갈 길,
우리의 달려갈 길"

2016
국내 다문화 사역 시작

experience
Life As Mission

2018
당신의 삶, 하나님
의 선교입니다.

2020
창립 30주년
"둘이 한 성령 안에서"

☐ 인터서브 필드

혼란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이끄시는 중국 선교를 바라보며...

프란시스정 선교사

2019년 12월 중국에서 “비자발적 철수”(추방)를 한 내게 많은 분으로부터 걱정 어린 탄식들이 쏟아졌다.

“아이고! 선교사님, 이젠 어떻게 해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럼 중국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힘들었던 것은 일주일 사이의 두 번에 걸친 이사, 갑작스럽게 몰려 닥친 공안들의 가택수색, 지역 보안국에 호출되어 공안들 앞에서의 대질 조사 따위의 것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들은 언젠가는 일어나리라 이미 예상하였으니까... 도리어 앞으로 보기 힘든 젊은 몇몇 형제들의 결혼식, 동역하는 중국교회들의 목사님들과 지체들과의 교제들과 같이 지극히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부분들이었다.

그러면 선교는?

선교사인 내가 그 중요하고 위대한 일을 걱정하지 않는다고?

물론 현재의 심각한 중국의 교회 상황을 생각하면 여러 동역자들의 걱정이 앞선다. 우리 선교사들은 비자발적 철수를 하면 그만이지만 현지 사역자들의 상황은 이 모든 어려움을 가슴으로 떠안아야 하지 않겠는가!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사역자들이 가택 연금에 되거나 심지어 옥고를 치러야 하는 일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그렇다면 정작 선교는? 중국교회는 이렇게 무너지고 마는 걸까?

● 혼란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

지난 역사를 되뇌어 보자. 역사 속에는 통찰력이 숨어 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 중국교회의 부흥 역사는 1949년 중국 공산당의 신중국 설립 이후에 있다. 10여 년 동안의 그 혹독했던 문화혁명 기간 동안 도리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어마어마한 부흥을 이뤄냈다. 역설적으로, 세계의 교회들이 중국교회를 걱정하고 있을 때 교회들은 성장했고 지금의 모두가 주목하는 놀라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다. 그것이 중국교회의 역사이자 세계 교회사의 본 모습이기도 하다. 현재의 중국의 상황은 문화혁명의 상황과 다른 듯 비슷한 상황으로 나가고 있다. 이런 힘든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통해 중국 교회의 주도적인 영적 자립과 정화, 그리고 다음 세대의 세계 선교의 대주자로서 훈련하기를 원하신다. 마오쩌둥의 종교 말살 정책 속에서도 그 위에서 통치하셨던 하나님은 시진핑의 핍박 아래서도 자신의 뜻을 지속적으로 이루고 계신다.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교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적 통치 아래서 소망이 있다.

● 신흥도시가정교회의 등장

현재의 중국 교회의 대표적 변화는 대도시의 “신흥도시가정교회”(新兴城市家庭教会; The third wave) 출현이 그 중심에 있다. 근래 급격한 도시화로 많은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몰려오며 새로운 신흥도시가정 교회들이 대도시마다 우후죽순으로 세워지고 있다. 이렇게 1990년대 이후 새롭게 발흥한 신흥도시가정교회는 전통적으로 농촌에서 부흥한 가정교회나 도시의 삼자교회와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도시교회이다. 신흥도시가정교회는 신앙 전통에서는 전통적 가정교회를 따르며



주로 도시의 젊은 고등교육을 받은 지식인들이 주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농촌의 가정교회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민들이나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한 성도들이 다수였다면 도시에서 일어난 신흥도시 가정교회는 경제적인 면에서나 교육적 측면에서 “중산층”교회라 부를 수 있다.

특히 신흥도시가정교회의 목회자들이 대부분 고등 교육을 받고 지역교회 목회에 주력하는 모습은 순회전도자들에게 의지하는 전통적 가정교회의 모델과는 구별된다. 또 다른 신흥도시가정교회의 특징은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 의식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있어 내적, 영적, 내세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전통적 가정교회와 구별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는 지진이나 홍수로 어려움을 당한 재해민들을 돕기 위해 그리스도인 자원봉사자들이 헌신하는 모습으로, 더 나아가 비정부단체(NGO)까지 만들어 사회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신흥도시가정교회의 긍정적인 면은 교회 연합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내가 거점을 두고 머물렀던 지역에서도 수많은 교회 연합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선교동원과 파송을 위한 선교연합체가 형성되기도 하고 지역의 연합모임들이 함께 선교대회를 열기도 한다. 또한 신흥도시가정교회들 안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국제 선교단체들이나 한국이나 미국 등의 해외 교회들과 직접 접촉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면서 선교사들의 역할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건강한 변화와 성장 속에서도 여러 과제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건강한 지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신학적 이슈 점검이 필요하다. 중국 특유의 유교적 또는 사머니즘적인 신앙을 돌파하기 위해 올바른 신학을 제공해야 하며, 이제는 교회 성장과 더불어 교회와 성도의 영적 성숙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회성장과 맞물려 신흥도시 가정교회들 안에서도 대형교회들이 속속 생겨났다. 소위 어디에 가면 어느 목사가 있다는 식의 스타 목회자들이 국내외의 교회들에 의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런 교회들을 동경하는 젊은 목회자들 가운데는 대형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목회의 목표로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일도 있다. 한국교회와 서구교회는 양적 교회 성장의 폐해가 무엇인지를 미리 처절하게 경험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양적 성장 신화에서 과감히 탈피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또다시 교회의 근본 목적을 잃어버리는 오류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건강한 교회와 성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국의 빠른 경제성장에 따른 교회의 세속화와 물질만능주의도 중국 교회의 바른 성장을 붙잡고 있는 요주의



문제점들이다. 이러한 중국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점들을 돌파하기 위해 이런 일들을 미리 경험한 한국 교회의 올바른 충고와 동역은 무척이나 중요하다.

● 인터서브와 중국 선교 과제

중국은 인터서브의 선교지 중 큰 편에 속한다. 하지만 지역의 광범위함과 창의적 접근 지역에 속한 특성상 선교사안의 지극히 제한적 만남 만을 가지고 있다. 현재 여러 전문적인 직종을 통해 중국의 곳곳에 흩어져 현지교회와 함께 사역하고 있다. 2010년대부터는 중국선교운동(CMM) 등을 설립해 중국의 선교 운동을 다양한 현지교회 네트워크들과 함께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 지역의 대부분의 선교사는 비자발적으로 철수를 했거나, 언제가 될지 모르는 비자발적 철수의 상황에서 사역하고 있다. 동부 지역의 상황 역시 기록하지 않다. 현재의 이런 중국 정부와 교회 간의 긴장의 상황이 계속된다면 인터서브의 여러 선교의 정책들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결국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의뢰하며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면 안 될 것이다. 바로 그분이 통치하시기에. 

함께 기도하기

1. 고난받는 중국교회와 중국의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믿음의 싸움을 굳게 싸워나가서 승리하게 하소서.
2. 중국교회가 정부의 강력한 핍박 속에서도 영적 순결함과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유지하고 물질만능주의와 이단의 도전, 성공주의와 교파 주의 등에서 변화하게 하소서.
3. 중국 공산당 안에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 많은 공산당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소서.
4. 사역하는 모든 인터서브 선교사들의 안전과 사역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중국교회와의 협력 사역들이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소서.




 미셔널 BOOK


사막에 자두나무가 자란다

나오미 리드 저, 문세원 옮김
앵커출판&미디어, 2020


그의 기이한 행적: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할지어다” (시 96:3). 인터서브 코리아 20주년 모임이 2010년 태국, 파타야에서 있었다. 본부 사역자들은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렇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관한 것이며, 그분의 영광과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서 선포하는 일이다. 이 이야기기도 하나님께서 인터서브 선교사들을 통하여 영광을 여러 나라 가운데 행하신 기이한 행적에 관한 보고서, 혹은 간증집이다.

총체적 선교: 최근의 선교의 화두 중의 하나가 ‘총체적 선교’ Wholistic mission이다. 인터서브는 1852년 인도에서 소외된 여성들을 지역 사회에서 섬기면서, 교육, 의료, 직업, 사회 제도 등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구속적 사역이 필요함을 발견하게 되었다. 인터서브는 초기부터 자연스레 ‘총체적 선교’를 지향하게 되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열두개의 스토리도 여러 사역 분야 Missions를 소개하고 있지만, 이야기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선교 Missions의 총체성을 담고 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용했던 그의 선교 철학을 인터서브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왔다. 우주를 지으시고, 72억의 사람들을 17,000여 다양한 민족으로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총체성은 문화의 다양성 속에서 나타난다. 하나님의 총체성과 인간의 다양성이 복음 안에서 표현된다. 파키스탄 남부 도시에서 사역하는 존과 수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모자이크 중의 하나이다. 이들은 그 지역 사람들의 결혼식과 장례식에 가서 노래를 불러주는 일이 그들의 직업이다. 모든 문화권의 가치관, 세계관에서 결혼과 죽음은 매우 중요한 지점이다. 그 세계관이 표현되는 현장에서 존과 수는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들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한다.

성육신적 선교: 이 주제는 ‘총체적 선교’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미 나타나는지 보여준다. 또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선교하기를 요청하신다. 아들을 사람의 모양으로 세상에 보내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성육신적 방식으로,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는 방식으로 세상에 보내신다. 키르기스스탄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누가와 노숙자들과 함께하는 마거릿의 삶이 바로 그런 이야기이다.

비즈니스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 BAMB^{Business As Mission}은 최근에 선교의 화두로 등장한 매우 강력하고 광범위한 선교의 개념이다. 기존의 ‘Business For Mission’을 완성도 높은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한 개념이다. 스콧과 수 부부는 북아프리카의 한 나라에서 10년 동안 향아리 사업을 해 왔다. 그는 향아리를 만드는 현지인들이 진심으로 탁월한 제품을 만들 때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향아리를 만들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현지인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돕는 것을 넘어서서 향아리를 만드는 일 자체가 그들을 사람답게 여겨주고, 또 그들 스스로 그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는 과정이 되었다고 고백한다.

자두나무, 누가 자라게 하는가? 아프가니스탄의 살기등등한 상황에서 파쉬툰족 사령관의 회심 이야기는, 선교의 주인이 누구인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스프링 선교사의 경험은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시는지를 보여주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인터서브 사람들은 스스로 규정하기를 ‘The people for the hard places’ 어려운 지역들을 위한 사람들이라는 정체성을 갖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송기태 파트너 (인터서브 부대표, 교회 관계)

인터서브 프렌즈

통권 138호
2020 WINTER



우리는 누구 입니까?

인터서브는 1852년부터 아랍과 아시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총체적 선교를 통해 복음을 증거해 온 글로벌 선교단체입니다.

비전

예수를 만나 변화된 삶과 공동체

목적 선언문

우리의 목적은 아시아와 아랍 세계의 가장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전 세계 교회들과의 파트너십과 총체적 선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 입니다.

핵심가치

1. 하나님을 의존함 2. 공동체 3.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4. 파트너십 5. 온전성 6. 총체적 7. 종 된 섬김

인터서브 계간지 2020년 겨울호 통권 138호

발행인 조섬

편집인 이나래

발행일 2020. 12. 8.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1206

전 화 031-778-7931 팩스 031-728-4777

이메일 interservekorea@gmail.com 홈페이지 interserve.kr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interservekorea

디자인·인쇄 피터플 010-3373-3750

<인터서브 프렌즈>에 게재된 글과 사진과 그림은 무단 복제 할 수 없습니다.

INTERSERVE KOREA

experience
Life As Mission

당신의 삶,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 A동-1206호 (금곡동 코오롱트리폴리스) 우)13616 Tel : 031-778-7932

Fax : 031-728-4777 Email : interservekorea@gmail.com H.P : interserve.kr FB : facebook.com/interservekorea